

중등학교 임용시험(국어과)의 비판적 검토

김중신*

〈차 례〉

- I. 서론
- II. 임용 시험의 영역별 검토
 - 1. 국어교육학의 경우
 - 2. 현대 소설의 경우
- III. 창의적 자질과 창의적 시험
- IV. 결론 및 제언

I. 서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격언이 있다. 이 말이 정당하면 교사의 질은 임용시험¹⁾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도 정당하다.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수많은 변인들이 있지만, 역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일 것이다. 같은 이유로 해서 교사의 질을 좌우하

*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이 시험은 모두 5개가 있으며 이의 정확한 명칭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3. 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을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으며, '임용시험'을 이의 약칭으로 삼고자 한다.

- 1. 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 3.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 4. 특수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 5. 실기교사·양호교사 및 사서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는 여러 변인들 중에서도 교사의 최초 임용을 결정하는 '임용시험'이야말로 교사의 질에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일 것이다. 특히나 한번 임용이 되면 자기의 의사에 반해 퇴출되지 않는 현재 교사 제도가 존속하는 한 '임용시험'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않을 수 없다.

이 시험은 중등학교의 교사임용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함이며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을 치른다. 수험생들은 교사, 그 중에서도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이 되기 위해서 평균 10.83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표 1 참조>) 그러므로 이 시험은 채용하는 측에서 볼 때는 '우수'²⁾한 자질을 갖고 있는 교사를 '선정'한다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해야 하며, 채용되고자 하는 측에서는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표 1> 2004 중등교사 임용시험 국어과 최종 지원 현황

지역	모집인원	지원자	경쟁률	실용시자	실경쟁률
서울	42	831	19.79	660	15.71
경기	210	2931	13.96	2403	11.44
인천	38	656	17.3	476	12.5
대전	26	435	16.73	308	11.8
충남	48	563	11.73	404	8.4
충북	20	263	13.2	216	10.8
광주	30	287	9.57	220	7.3
전북	18	360	20.0	299	16.6
전남	14	259	18.5	160	11.4
강원	25	264	10.56	235	9.4
대구	49	449	9.2	374	7.63
경북	37	460	12.43	330	8.9
경남	68	938	13.76	766	11.26
부산	27	306	11.3	265	9.8
울산	30	353	11.77	254	8.5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 등)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제주	12	74	6.16	69	5.75
계	12	74	13.59	69	10.83

따라서 이 시험은 타당하면서도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공정해야 한다. 즉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는 교사를 정확하게 선별해 낼 수 있도록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며,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임용시험을 주관하는 당국에서 '우수 교사 선발을 위한 전형 자료의 일차 요건은 신뢰성과 타당도 확보'이며, '특히 평가 내용과 방법이 타당해야 하며 그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어야'(이인제, 2003: 8) 한다고 진단한 것은 옳바르다.

그렇다면 이 시험이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는 교사를 감별하고 선정해 내는데 적절한 평가 도구였다고 인정받고 있는가.³⁾ 유감스럽게도 그 동안에 이 시험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듯싶다. 여기서는 지면의 한계상 국어교육학 영역과 현대 소설 영역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II. 임용 시험의 영역별 검토

이 시험의 시행과 관련되어 제기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 가. 시험 공고 시기의 부적절성
- 나. 임용시험과 교원 양성 교육과정 사이의 연계성 미흡
- 다. 지필교사 비중 과다

3) 우수한 국어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설령 우수한 교사에 대한 상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해도, 그러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교사 임용 시험제도의 전형 단계 및 전형 요소, 그리고 전형 요소별 평가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이종승, 2003: 4)

- 라. 출제 문제에 대한 공정성 시비 제기
- 마. 문제 출제 영역 사전 공고 및 채점 기준표 공개 요구 사례 급증
- 바. 수업 실기 능력 평가 미흡
- 사. 형식적인 면접 시험
- 아. 가산점의 합리적 부여 미흡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에서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은 필자의 능력과 관심 밖의 일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⁴⁾ 여기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용시험의 국어과 문항들에 공정성과 타당성, 신뢰성이 온당하게 확보되고 있는지(주로 위의 라, 마 항)에 대해서 다루기로 한다.⁵⁾

1. 국어교육학의 경우

<표 2> 국어교육학 영역 연도별 출제 영역 및 문항

연도 영역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화법	말하기 영역의 내용 체계 1) (말하기의) 본질, 원리, 태도의 개념 설명 2) 본질, 원리, 태도와 관련된 구체적 지도 내용 제시	화법의 개념(협력적 의미 창조 행위로서의 화법의 개념 제시)	듣기·말하기 교육에서의 교수·학습 방법 1) 듣기·말하기 수업 평가 2) 설득하며 말하기의 지도 내용	1) 듣기 태도와 관련된 교수·학습 내용 2) 듣기에서의〈상위 인지적 활동〉과 듣기의 본질, 목적, 상황과의 관련성 3) 토론 논제 수업에 앞선 준비 활동(3가지)	1) 모둠별 상호 평가를 통한 교수·학습 내용 및 활동 제시 2) 직접 교수법의 구체적 적용

4) 교육인적자원부(2003), 이인재(2003) 참조.

5) 유감스럽지만 현재 이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이 시험의 전 공과목에 관한 한, 문제지 이외에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필자가 이 글에서 이 시험과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자료들은 개인적인 노력과 수험생들의 진술 그리고 임용시험과 관련된 인터넷 카페 등에서 취합한 것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인용한 자료들은 객관적인 공신력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참고 자료로서의 가치만을 갖고 있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독서		읽기 지도(읽기에 서 활용 가능한 시 전의 유형과 사용 방안)	1) 비판적 이해의 적용 - 글의 공통 점·차이점 파악 하기 2) 기본·보충 학 습 활동의 적용 - 내용 관계 파악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 자료의 확성과 적절성 단하기	1) 읽기 과정에 따른 학습자의 사고 활동 제시 2) 구체적인 예시 를 통한 표지의 기능 알기
작문	쓰기 지도 1) 제시된 학생 의 글에서 쓰기 문제점 파악 2) 학생의 쓰기 문제점 해결 방 안 제시	내용 생성하기 1) 토론을 통한 쓰 기의 내용 생성하 기 2) 현시적 교수법 에 의한 쓰기 지도 방법	1) 개요 작성의 문 제 파악 2) 고쳐 쓰기 활동	1) 기사문의 구성 요소 제시 2) 제시된 기사문 고쳐 쓰기	모둠별 보고문 쓰기의 지도 활 동 1) 주제에 적합 한 조사 방법 파 악 2) 보고문 판단 하기 3) 보고문과 관 련된 자기 점검 요소 제시
국어 생활		'국어 생활' 과목 의 성격 제시			
교과 서	단원의 길잡이 1) '단원의 길잡 이'의 기능 제시 2) 읽기 단원의 '단원의 길잡이 작성하기)				

〈표2〉에서 보듯이 국어교육 영역은 화법, 작문, 독서 등 활동 과목 세 분야가 매번 고르게 다루어지면서 7차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국어생활'과 '교과서'가 일부 다루어지고 있다. 2000년도 이전까지는 국어교육 영역의 문제 수는 3개로, 주로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에 대한 지식을 영역 구별 없이 묻는 물음들이 대부분이었다. 2000년도 임용 시험부터 국어교육학 영역을 크게 '화법, 독서, 작문'의 세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하위 영역별로 한 문제씩 출제하여 각각 6~7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대체로 2000년도 시험 이후, 임용 시험에서 국어교육학 영역의 하위 영역별 점수 배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는 평가이다.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된다.

첫째, 2000년도 시험 이후 국어교육학에 대한 시험 문제가 지식을 지식으로만 묻는 물음에서 벗어나 그 구체적 적용이나 활용 형태를 묻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전의 시험은 '작문의 과정에 따른 작문의 문제 해결 전략을 쓰시오, 표현 기능에 관한 직접 평가의 범주를 제시하시

오.'처럼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된 지식이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와 관련된 지식을 직접적으로 묻는 물음이 그 전부였다. 그런데 2000년도 임용 시험에서는 '구체적인 지도 내용을 제시하시오, 단원의 길잡이를 직접 작성하시오, 제시된 글의 쓰기 문제점을 지적하시오.'처럼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된 지식의 구체적 적용을 요구하였다. 이는 임용 시험의 성격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임용 시험이 전공에 관한 해당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여 그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해당 지식을 교수·학습과 관련지어 얼마만큼 구체화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데에 목적이 있다면 '지식의 구체적 적용'은 임용 시험을 임용 시험답게 하는 중요한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둘째, 2000년도 시험 이후 영역별 통합 문항이 출제되었다. 이는 한 문항에서 묻는 물음이 기존(2000년도 이전)의 한 가지에서 두세 가지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문항 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세 문항이지만, 문항별 하위 문제(가지 문항)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전의 시험에서 존재하던 문항별 조건들이 2000년도 시험에 들어와 단순하게 개별 물음으로 그 모습을 달리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항별 하위 문제의 설정은 문항별 조건들을 의문형으로 전환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하위 문제의 설정은 하나의 영역에서 여러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으며, 하위 문제들 간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화법, 독서, 작문'의 이론(지식, 원리)과 실제(적용, 활용)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위의 표에 나타난 화법, 독서, 교과서의 '1'에 해당하는 물음은 주로 이론(지식, 원리)과 관련된 내용들이며, '2'에 해당하는 물음은 그 실제(적용, 활용)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틀은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 평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물음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하위 문제의 설정은 앞으로 시험에서 영역 구분이 없는 영역 통합적 문제의 출현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언어 자료는 화법의 내용이지만, 하위 문제를 통해 독서 및 작문에 대한 물음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2003년도, 2004년도 시험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문항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내용이 제한된 시간과 분량 내에 풀기에는 어려운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나의 문항에 3~4 점을 할당한 후 수험생들에게 6~8분 동안 문제를 읽고 답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면, 해당하는 답안의 길이도 일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임용 시험을 치른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 넋두리하듯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점수에 따라 요구하는 답안의 분량이나 내용을 고려하여 출제할 필요가 있다.⁶⁾

2. 현대 소설의 경우

〈표 3〉 임용시험 현대 소설 영역 분류표

작품 관점	인 물	시점 및 화자	문체 및 사건, 기법	사회, 문화적 배경 및 문학사적 의의	장르상 특징 및 변화
구 조 론	02-8-1 '표본 설의 청개구리' 화자의 생각 변 화 이유를 '민 세전'의 내용을 근거로 설명 02-8-2 '역로' 의 두 인물이 대화하고 있는 문제내용과 그 문제에 대한 각 각 인물의 생각 에 대해 설명	00-10-2 '소설 가 구보씨의 일 일'과 '날개'의 화자는 각각 지 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사술과정 에서의 그 기능 과 역할이 다르 다. 작품에서 서술상의 차이 설명	99-12-1 '무진 기행'에서 구체 적인 예를 찾아 소설에서 사용 되는 언어의 유 형과 특성 설명 99-12-2 '무진 기행'에서 전체 줄거리를 참조 하여 '안개'의 의 미를 구체적으 로 설명	00-10-1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날개'를 바탕으로 청 개구리 당시의 시대와 상황, 의 식 국 문학의 관계, 우리 소설발 전에 기여한 의의를 설명	02-8-3 '역로'가 표본설의 청개 구리'에 비해 훨씬 희곡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 거 3가지 설명
반 영 론	01-12-2 '만무 방'에서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는 원리를 '응오의 행위를 통하여 설명		04-9-1 근대의 일상적인 인간 에 대한 통찰을 '삼대의 중신사 건' 축을 근거로 설명	04-9-3 프로문학, 염상섭, 김유정의 관계를 이념의 문 제를 중심으로 설명 98-9-2 '광장'과 '부끄러움' 을 민족문학의 소산으로 볼 때, 민족문학의 가치 면에 서 어떻게 대비되는지 설명	

6) 이 점은 2002년부터 작성할 답안의 길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밑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보완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답안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제한된 시간 내에 쓰기에는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98-9-1 '광장'이 발표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문학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전후소설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 97-9-1 '감자'가 지어진 시기에 나타난 문학사적 변화를 소설 중심으로 설명(형식주의적 문학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 문학사적 의의, 김동인의 소설론의 내용과 특징 요약할 것)	
수 용 론		01-11-2 '사랑 손님과 어머니' 외 '치숙'을 읽을 때 화자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독자에 게 부여되는 해석 적 가치를 설명	00-10-3 '날개' 의 밑줄 친 부분 의 상징적 의미 를 밝히고, 현실 세계나 문학 세 계에서 유사한 것을 찾아 설명		
표 현 론	04-9-2 '술집 머느리'를 바 라보는 작가의 시선을('감자' 의 복녀와 비교 할 것) 밝히고 그 근거를 본 문에서 제시할 것, 작가 의식 설명 03-10-1 '무 정'을 작가의식 과 관련 하여 작품에 나타난 인물관계의 구 조적 특성을 예 를 들어 설명 99-7-1 '논 이 야기'에서 풍자 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한생원 의 성격과 행동 특징을 밝히어 설명하고, 작 중인물의 현실 인식 특성을 고 려하여 리얼리 즘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설명	01-11-1 '사랑 손님과 어머니' 외 '치숙'에 나오는 화자의 공통점과 차이 점을 화자의 식에 근거하여 설 명		01-12-1 농촌사회의 계층, 경제, 풍속 등을 고려하여 '봄봄', '만무방'에 나타나 있는 김유정의 현실인식을 설명 99-7-2 소설 같은 허구적 이야기의 공헌할 수 있는 형상화의 방법 설명	소설이 있는 방향

소 통 론					97-2 '감자와 대비적 인 관점에서 수필의 장르상 특징을 작가와 독자의 이야기 소통구 조, 이야기 성격, 서 술의 태도를 중심으로 설명
교수 학습 전략	98-10-2 '광 장의 인물들' 토 론을 수업하 고자 토론회 정할 것		98-10-1 '문학 은 언어적 이다'라는 관점 에서 '광 장'을 통해 문학의 본 질과 기능 영역 을 가르치려 한 다. 하위 내용 범주와 지도 내 용을 교육과정 에 나타난 대로 발할 것	03-10-2 신채호의 글의 관점에서 '무정' 을 평가하고, 지도시 유의점을 문학사적 연 속성과 작품 자체의 평가의 문제와 관련 지어 설명	99-12-3 영화로의 매 체교섭 전략으로 '무진 기행'을 교수-학습하고 자 할 때, 이러한 교수 -학습의 중요성과 전 략 제시

〈표 3〉은 필자가 학생들과 임용시험에 대비하면서 정리해 놓은 표이다. 7) 가로축은 소설 원론과 문학교육과정 상의 강조점 등 주로 작품 내적인 요소를 배열하였으며 세로축은 문학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문학교육 방법 등 작품 외적인 요소를 배열하였다.

1998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 출제된 현대 소설 영역에서는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채만식, 김유정, 주요섭, 이상, 박태원, 최인훈, 김승옥, 윤오영 등 한국 근대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들이 망라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김동인, 김유정, 염상섭 등은 중복되어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하지만 문제의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04학년도에 시행된 문제를 토대로 살펴보자. 2004학년도 임용시험에서 '현대 소설' 분야는 염상섭의 '삼대'와 김유정의 '산골 나그네'를 지문으로 다루고 있다.

- 7) 이 표는 학습 대비 차원에서 만든 것이므로 이원목적분류표로서의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좀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원목적분류표를 제시하거나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II장 서두의 문제점 나. 항에서 제기된 것처럼 임용시험과 교원 양성 교육과정 사이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8점)

(가) 아버지의 흥경애에 대한 경우도 그랬을 거다. 돈 없는 아버지였다면 아버지보다 먼저 부탁을 받을 동지도 많았을 것이 아닌가. 아버지 경우나 내 경우나 돈 있는 집 자손이라는 공통한 일점에 똑같은 처지를 당하였을 뿐이지 무슨 숙명적 암합이 있을 리가 있나.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답게 그 부탁을 이행하였을 따름이요, 나는 내 성격과 내사상, 내 감정대로 이행해 가면 그만 아닌가?

덕기는 필순이 '제2 경애'라고 한 모친의 말을 또 한번 힘있게 부인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돈이란 무어냐? 돈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는 필순의 부친이 아내나 딸을 자기의 돈에게 부탁한 것이지 돈 없는 덕기였더라면 하필 덕기에게 부탁하였으랴 하는 생각을 할수록, 마치 돈을 시키고 질투하듯이 반문을 하여 보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자신의 대답은 덮어두고 싶었다. 다만 '돈 없는 덕기'로서 지금 필순 모녀에게 조상을 간다고 생각하고 싶다.

그보다도 애통해 하는 필순이 춥고 음침한 마루방에서 어떻게 이 밤을 살아 보고 오지 않으면 마음이 아니 놓여서 뛰어나온 것이었다.

덕기는 병원 문 안으로 들어서며, 아까 보낸 부의가 적었다는 생각이 들자 나을 제 돈을 좀 가지고 올걸! 하는 후회가 났다. 그것은 필순에 대한 향의로만이 아니었다. 구차한 사람, 고생하는 사람은 그 구차, 그 고생만으로도 인생의 큰 노역이니까, 그 노역에 대한 당연한 보수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도의적 이념이 머리에 떠오르는 덕기는 필순 모녀를 자기가 맡는 것이 당연한 의무나 책임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었다.

- 염상섭, '삼대'에서

(나) 불러 보아도 대답이 없다. 그제서는 어림짐작으로 우선 머리맡에 위에 놓았던 옷을 더듬어 보았다. 땀은 없다.

필연 잠든 틈을 타서 살며시 옷을 입고 자기의 옷이며 버선까지 들고 내뺏음이 분명하리라.

홀어미는 구태여 머느리를 도적년으로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거만

울상이 되어 허병저병 방안으로 들어왔다. 마음을 가라앉혀 들쳐 보니 아니나 다를라. 머느리 배개 밑에서 은비녀가 나온다. 달아날 계집 같으면 이 비싼 은비녀를 그냥 두고 갈 리 없다. 두말없이 무슨 병폐가 생겼다. 홀어미는 아들을 데리고 덜미를 잡히는 듯 문 밖으로 찾아 나섰다. (...중략...)

거지는 호사하였다. 달빛에 번쩍거리는 겹옷을 입고서 지팡이를 끌며 물방앗간을 등졌다. 골골하는 그를 부축하여 계집은 뒤에 따른다. 술집 머느리다.

"옷이 너무 커, 좀 적었으면....."

"잔말 말고 어여 갑시다 펄쩍....."

계집은 부리나케 그를 재촉한다. 그리고 연해 돌아다보길 잊지 않았다.

(...중략...)

"아 얼른 좀 오게유."

똥끝이 마르는 듯이 계집은 사내의 손목을 겹겹히 잡아끈다. 병든 몸이라 이끌리는 대로 뒤뚱거리며 거지도 으스스한 산 저 편으로 같이 사라진다. 수은 빛 같은 물방울을 품으며 물결은 산벽에 부딪뜨린다. 어디선지 지정치 못할 늑대 소리는 이 산 저 산서 와글와글 굴러내린다.

- 김유정, '산골 나그네'에서

9-1. (가) 부분에서 작가는 근대의 일상적인 인간에 대한 통찰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삼대'의 중심 사건 축을 근거로 하여 설명하시오. (2점)

<예시 답안>

(A) 이 작품은 세대간의 갈등이 중심 사건축인데, (가)부분에서 아버지가 돈을 잘못 사용하여 타락한 삶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아들인 덕기는 그것을 비판하며 돈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려는 자세를 보인다. 즉, 돈에 대한 인식과 돈의 사용 문제를 두고 세대간에 갈등하고 고뇌하는 근대인의 모습을 통찰하여 드러냈다.

(B) <삼대>는 조의관의 재산 문제로 가족간에 빚어지는 갈등을 통해, 도시 중산층의 일상의 삶에 나타난 물질 지향적인 삶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C) (0~1점) 덕기와 할아버지 아버지를 나타내는데 덕기 아버지는 계집

질을 하고 다니는데 덕기는 그러한 아버지의 계집에 대해 다소 온정을 가지고 있다.

9-2. (나)의 '술집 며느리'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어떠한지 밝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본문에서 찾아 제시하시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한 바를 쓰시오. (3점)

<조건> '술집 며느리'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감자(김동인)'에서 '복녀'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과 비교하여 설명할 것.

<예시 답안>

(A) * 근거는 아래의 ①, ② 모두 가능할 듯

작품과 「감자」에서 주인공 여인의 삶은 모두 비극적인데, 「감자」에서 작가의 시선은 냉정하고(차갑고) 비판적인 관찰자의 시선이다. 복녀는 환경과 욕망에 의해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나) 작품에서 '술집 며느리'에 대한 작가의 시선은 동정적이며 연민을 느끼게 하며 휴머니즘이 담긴 시선이다. '술집' 며느리의 행동은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① 매음이나 술집 아들과의 결혼 등은 모두 병들고 가난한 남편에게 접옷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었고, 풍족한 술집 아들보다 병든 남편을 택했다는 점에서 연민과 동정이 드러나고, 또 ② 여인이 값비싼 은비녀를 두고 가며, 홀어미도 '며느리'를 도둑으로 생각하지 않고 '홀어미는 도적녀'로 - 그냥 두고 갈 리 없다. 라는 부분에서 작가의 동정적인 시선이 잘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불행한 시대(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궁핍한 하층민(유랑민)의 비극적인 삶의 실상을 드러내어 그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정을 일깨우고 있다.

(B) 김동인이 <감자>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복녀에게 객관적인 태도를 취한 것과 달리, 김유정은 '술집 며느리'가 은비녀를 배개 밑에 묻어두고 떠나는 선량함을 통해 그녀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다. 이것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작가의 연민과 함께,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 걸식할 수밖에 없었던 일제강점기 농촌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C) (1점) 복녀는 환경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어 작

자의 다소 온정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며느리가 은비녀를 두고 간 것을 보면 작가가 다소 온정적이고 인간적인 면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9-3. (가)와 (나)가 발표된 시기의 문단은 프로 문학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가)의 작가가 속한 유파와 (나)의 작가가 속한 단체의 활동도 있었다. 이념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들 세 부류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3점)

<예시 답안>

(A) 프로 문학은 당대 현실의 문제나 정치적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사회주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작품 활동을 전개했다. 그런데 (나)의 작가가 속한 '구인회'는 카프의 정치적·목적적 문학에 반대하여 순수문학을 옹호하고 주장했으며, 이념(사회주의)이나 정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한 채, 주로 모더니즘의 형식과 기법 등에 관심을 가졌다. (가)의 작가는 '절충주의(중도주의)'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프로문학이 내세운 사회주의 이념의 경직성과 순수문학(민족주의 문학)이 지닌 보수성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프로문학의 이념을 일부 수용하고, 민족주의 문학의 조선주의 등을 수용하여 조화를 강조한 중도적 논의이다.(그러나 '절충주의'는 '민족주의 문학' 계열에 더 가까운 논의였다.)

(B) 카프는 사회주의 이념을 중시한 계급주의 문학을 추구한 반면, 염상섭이 속했던 <국민문학과>는 계급주의 목적문학을 거부하였지만 공리주의적인 차원에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김유정이 속했던 <구인회>는 계급주의 및 공리주의 문학을 배격하고 순수문학을 추구했다.

(C) (0점) (가)의 작가는 자연주의 (나)의 작가는 순수문학을 했다.

2004학년도 문제는 두 작품을 지문으로 선정하고 3개의 문항에 8점을 배당하고 있다. 각 문항에는 점수가 할당되어 있으며 발문은 할당된 점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평가 요소가 내함되어 있다. 점수 부여의 편

의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9-1의 경우 2점이 할당되어 있는 바 '삼대'에 나타난 근대의 일상적인 인간상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는가가 1점, 이를 삼대의 중심 사건 축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가가 1점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A)와 (B)는 임용 시험과 관련된 학원가에서 제시한 예시 답안의 두 예이다. 두 답안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교적 대동소이하다. 2004년 시험에서 현대 소설 영역이 특정 이론에 편중하지 않고 보편적인 내용을 다루었다는 증좌라고 할 것이다. (C)는 이번엔 시험을 본 어느 학생이 임용시험과 관련된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http://cafe.daum.net/truedu>)에 올린 것이다. 괄호 안에 자신의 예상 점수를 적어 놓고 있다. 학원가에서 제시한 예시 답안인 (가)와 (나)에 의거하여 볼 때 비교적 냉정하면서도 정확하면서도 채점하고 있다. 이 학생은 전공 점수를 70점 만점에 41점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합격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차 합격 점수가 교육학 30점을 포함하여 80점 이상에서 분포하고 있다.

<표 4> 2004학년도 지역별 합격 예상 점수

지역	1차 합격 점수	최종 합격 점수	지역	1차 합격 점수	최종 합격 점수
서울	91.00	138.60	전남		
경기	85.37	146.37	강원	81.57	154.26
인천	81.93	126.59	대구		
대전	85.77	127.50	경북		126.66
충남	81.37	136.31	경남	82.13	133.22
충북	81.97	160.48	부산	84.60	126.46
광주			울산	81.37	124.94
전북			제주		

* 빈 칸은 확인 못함.

다음에는 각 문항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9-1은 '삼대'에 나타난 근대의 일상적인 인간상을 추출해 낼 것을 요

구하고 있다. 미루어 짐작컨대 출제자는 제시된 지문이 조부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족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돈’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근대의 일상적 인간상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대의 일상적 인간상을 ‘돈’이라고 단적으로 규정짓는 것은 비약이다. 물론 이에 대한 학계의 정설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지만 지문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조덕기의 태도도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족간의 갈등’도 근대의 일상적 인간상의 중요한 양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시답안 A와 B에서도 이 점을 고려한 듯이 보인다. C의 학생의 경우는 아버지와 흥경애, 필순에 대한 조덕기의 태도 등에 착안하여 ‘세대 간의 축첩 양상’을 중요한 양상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9-2에서는 김동인의 ‘감자’와 김유정의 ‘술집 나그네’에 나타난 작가의 태도를 문제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작가의 시선’이라는 용어는 매우 애매하다. 두 작가를 비교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미루어 인물에 대한 ‘냉엄/ 동정’을 주요한 키워드로 삼은 듯 하다. 그렇다면 이는 ‘작가의 시선’이라는 용어보다는 ‘인물에 대한 작가의 태도’라는 용어가 더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교사를 선정하고자 하는 시험이므로 가급적 교육과정에서도 다루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9-3은 여러 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문학사적 흐름이나 문학 작품의 해석에 관해서는 정설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시험이 ‘우수 교사 선발을 위한 전형 자료의 일차 요건이 신뢰성과 타당도 확보’이며, 이 점에서 ‘평가 내용과 방법이 타당해야 하며 그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어야(이인제, 2003: 4)’ 한다는 전제에서 볼 때 특정 학자의 주장이나 견해에 의거하기보다는 ‘백과사전’에 있는 진술을 토대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발문에서는 (가)의 작가, 즉 염상섭이 속한 유파와 (나)의 작가, 즉 김유정이 속한 단체를 이념의 문제를 중심으로 프로 문학과 관련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항에 배당된 점수가 3점임을 미루어 이념의 문제를 중심으로 세 유파의 특징이 각각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찬찬히 들여다 보자.

먼저 시기의 문제이다. (가)의 지문인 <삼대>는 1931년 1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모두 215회 걸쳐 조선일보에 연재한 작품이며, (나)는 1933년에 발표된 김유정의 처녀작이다. 따라서 발문에서는 1930년대 초반의 시대를 말한다. 그런데 발문은 이 시기를 '프로 문학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라고 전제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카프는 1925년 8월에 창립되어 활발히 움직이다가 1931년 8~10월에는 조선공산당협회 사건과 연루된 세칭 '카프 1차사건'을 겪게 된다. 동경에서 발행된 '무산자'의 국내 배포와 영화 '지하촌(地下村)' 사건으로 김남천 등 11명의 동맹원이 체포되어 카프의 조직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물론 이 와중에 카프 내부에서 예술대중화나 농민문학론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론과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론이 제기되고, 송영, 이기영, 한설야, 김남천, 이복명, 임화, 권환 등이 정치적 색채가 강한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나 범 문단적인 주목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카프는 1차 검거 사건을 계기로 조직 활동이 정체되었다가 1933년부터 '신진설사 사건'으로 이기영, 한설야, 윤기정, 송영 등 23명이 체포되는 2차 검거사건을 겪으면서 급속도로 와해되기 시작한다.⁸⁾ 더군다나 김유정이 구인회에 가입을 하던 1935년에는 일제로부터 직접적으로 해산 압력까지 받은 카프의 지도부는 그 해 5월 카프 해산계를 제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해체하였다. 따라서 두 작품이 발표된 시기를 카프 문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전제한 것은 오류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가)의 작가, 즉 염상섭이 속한 유파이다. 염상섭은 '삼대'에서 세대간의 문제뿐 아니라 덕기와 병화, 피혁을 등장시켜 이념간의 대립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유산 상속자인 덕기뿐 아니라 사회주의자인 김병화에 대해서도 편견없이 개량주의자적인 시선으로 따뜻하게 관찰하고 있다(송현호, 2000)는 점에서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

8) 이하 네이버 백과사전 '카프' 항목 참조.

반적이다. 특히나 <삼대>에서 그리고 있는 조씨 일가의 세대 대립이 근본적으로 이념적인 것이라기보다 구체적인 돈 문제라는 점에서 염상섭이 중도적 입장을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발문에서 규정한 '그가 속한 유파'라는 점에서는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염상섭의 연보에 의하면 그가 공개적으로 가입한 단체는 없다. 다만 1920년대에는 속칭 국민문학파⁹⁾에 참여를 하여 프로 문학과 논전을 벌이기도 한 바 있다. 하지만 염상섭은 1929년 6월 결혼을 한 후 직장 에 비교적 충실하였다가 1931년 1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모두 215 회 걸쳐 조선일보에 <삼대>를 연재한다. 이후 4, 5년간 왕성한 창작력 발휘, 염상섭 문학의 원류를 형성하는 3부작인 <삼대(三代)>, <무화과(無花果)>, <백구(白鳩)>를 집필하였으나 1936년에 만주행을 단행을 하고 만선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한다. 이렇게 볼 때, '그가 속한 유파'를 굳이 따진다면 국민문학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문학파는 2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유파를 말한 것으로서 30년대 초반의 이념의 문제와 관련된 세 유형의 한 축으로 규정짓기가 힘들어진다.

셋째로 (나)의 작가, 즉 김유정이 속한 단체의 활동이다. 강원도 춘천 출생인 김유정은 휘문전문, 연희전문을 거쳐 보성전문학교를 나온 후 25세 이전까지 금광을 전전하다가 1933년 서울에 올라와 사직동에

9) 1926년경부터 한국문단을 제폐하고자 하는 프롤레타리아트문학파에 대항하여, 주로 민족문학의 입장에 있는 문인들에 의하여 일어난 문학운동. 문학활동에서 민족, 또는 국민의식의 필요를 역설하고 그 기초 위에서 문학·예술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불린다. 주요 인물은 최남선(崔南善)·이병기(李秉岐)·염상섭(廉相涉)·조운(曹雲)·김영진(金永鎭)·이은상(李殷相)·이광수(李光洙)·주요한(朱耀翰)·양주동(梁柱東) 등이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의식을 진작할 수 있는 작품을 쓰고 읽힐 것, ② 역사소설을 제작하여 대중이 민족사에 눈뜨게 할 것, ③ 시조(時調)의 부흥을 도모할 것 등이다. 또한, 1926년은 병인년(丙寅年)으로 훈민정음이 반포된 병인년의 8회갑(八回甲:480년)이 되는 해여서 '가갸날(한글날)'을 제정한 것 등도 이 운동의 영향이었다. 이 운동은 1929년을 전후하여 일어난 절충주의(折衷主義)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점차 중립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 문인들을 국민문학파라 불렀다. (네이버 백과사전, '국민문학운동' 항목)

서 누님과 함께 기거하던 중, 폐결핵 발병을 진단받았다. 이 해 1월 13일 '산골 나그네'를 탈고하여, 안희남의 주선으로 '제1선' 지 3월호에 발표했다. 이것이 그의 공식적으로 발표된 처녀작이다. 이후, 1935년 27세 때 조선일보 신춘문에 현상문에 현상모집에 '소낙비' 1등 당선. 조선중앙일보 신춘문에 현상모집에 '노다지'가작 입선. 1월 20일 아서원에 서 신춘문에현상 1등 당선 축하회. 6월 3일 백합원서 조선문단사가 주최한 문예좌담회에 참석했다. 이 모임에는 안희남(安懷南), 김남천(金南天), 이학인(李學仁), 박영호(朴英鎬), 이선희(李善熙), 함대훈(咸大勳), 이현구(李軒求), 이석훈(李石薰), 김환태(金煥泰), 이무영(李無影), 한인택(韓仁澤), 서항석(徐恒錫), 정지용(鄭芝溶), 김희규(金禧奎), 이하운(李河潤), 김광섭(金光燮), 방인근(方仁根), 최정오(崔定吾) 등이 참석하였고, 여기에서 이태준(李泰俊)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 구인회(九人會)¹⁰⁾ 후기동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후 1년간 작품을 활발히 발표하다가 이듬해인 1937년 병이 깊어진다. 이 때 김문집이 병고 작가 구조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2월 경기도 광주로 요양을 떠났고 3월 29일 오전 6시 30분에 30세의 나이를 다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그의 공식적인 문단 활동은 1935년부터 1년간에 걸쳐있으며 그가 활동을 했던 유일한 단체는 구인회로, 가입을 한 것은 1935년 6월이다.¹¹⁾ 구인회가 과연 카프와 비전될 만한 단체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김유정이 구인회 동인으로서 활동하던 시기는 1935년부터 약 1년간이다.

10) 1930년대에 경향 문학이 쇠퇴하고, 이어 문단의 중견급 신진 아홉 사람이 결성한 문학 친목 단체(1933.8 결성). 김기림, 이효석, 이종명, 김유영, 유치진, 조용만, 이태준, 정지용, 이무영이 첫 회원. 도중에 이종명, 김유영, 이효석 대신에 박태원, 이상, 박팔양이 새로 가입했고, 유치진, 조용만 대신에 김유정, 김환태로 교체되기는 했으나 항상 9명의 회원 수에는 변동이 없었다. '구인회'는 친목 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1930년부터 문단의 주류가 된 순수 문학의 가장 유력한 단체, 계급주의 및 공리주의 문학을 반대하고 순수 문학을 확립하는데 커다란 문학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가장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쓴 시인, 작가들의 모임이었다.(네이버 백과사전 '구인회' 항목 참조)

11) 이상은 네이버 백과사전 '김유정' 항목 및 유인순(2003) 참조.

짐작컨대 발문에서는 1920~30년대를 이념의 시대로 규정하고 이를 둘러싼 세 유형, 즉 프로 문학으로 대변되는 좌파, 구인회로 대변되는 우파, 그리고 염상섭이 취한 중도적 입장 등의 관계를 설명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문과 발문에서 제시한 작가나 유파들이 세 유형을 직접 표상하지도 않으며 또한 동일한 시대를 접하고 있지도 않고 있어, 이 시험이 가져야 할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에 우려를 던져준다고 아니할 수 없다.

Ⅲ. 창의적 자질과 창의적 시험

임용시험의 본질적 한계는 '지필고사'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임용시험 자체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다. 어떤 직업보다도 창의적인 사고력 훈련과 풍부한 감성을 축적하는 실생활의 경험이 필요한 교사들에게 지필고사는 출제자의 의도와는 다른 새로운 구상을 펼치는 능력을 기르기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으며, 기존 인식체계에 구속되어 사고하게 만들어 교육적으로는 치명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하병수, 2003: 69)

위와 같은 지적은 굳이 임용시험 뿐 아니라 시험, 특히 고시로서 인재를 선발하는 모든 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 지적이다. 다양성과 창조성은 교사가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이자 자질이다. 하지만 이를 시험으로 평정해 낼 수 있을까. 과연 창의적인 시험 문제를 통해 창의성이 있는 사람을 감별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임용시험과 같은 지필고사의 한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적은 온당하다.

지필고사는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 면에서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교육적으로는 치명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법·행정고시와 마찬가지로 이들 지필 시험이 요구하는 것은 기존 인식체계에 대한 복속을 수험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출제자가 사전에 상정하고 있는 정답이 설정되어 있고, 수험자들은 이 정답을 알아내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학습의 범위가 대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 설정된 내용에 대한 반복적 암기학습입니다. 수험자 자신의 창의로운 발상이나, 출제자의 의도와는 다른 새로운 구상을 펼치는 능력을 기르기 힘듭니다. 고등정신 기능이나 체험을 요구하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곽병선, 1999: 40)

시험이란 태생적으로 평정자(評定者)의 의도에 맞게 피평정자(被評定者)가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시험은 출제자가 사전에 상정되어 있는 답을 수험자들이 알아내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논문이나 레포트처럼 시간이나 공간 혹은 자료의 제약없이 임의롭게 답안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평정자(評定者)의 심사를 거친 후에야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렇다면 과연 시험을 통해 창의성을 측정하는 것은 가능한가?

창조(創造)는 이제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이며 창의(創意)는 이러한 일의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다분히 형이상학적 개념이다. 창조 혹은 창의는 기존의 요소 혹은 소재(素材)의 독창적인 편성에 의한 새로운 타입의 사물의 산출에서부터 완전 무(無)에서의 세계 그 자체의 창출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 쓰이는 말이다.

흔히 시인은 세계를 창조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창조'란 무엇일까. 조물주가 만물을 처음 만든 것과 같은 개념으로서의 '창조'일까. 시인이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은 조물주가 만든 세계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세계라는 개념일 것이다. 즉 시인이 창조하는 것은 이전에 전혀 없는 완전 무에서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것과 구분되는 무엇인가 특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어 낸 것으로 간주된다. '창조'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이전의 것보다 뭔가 색다른 것을 만들어 냈다면 그 시인은 '창조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시에서 말하는 창조란 결코 '처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실체에 이전에 비해 색다르거나 특이한 속성을 첨가한 것이

표하던 학생은 학기 초에 어머니를 여의었다고 들었는데 항상 밝은 모습으로 있던 것이 좋았습니다.

13번 문항의 경우 원래의 정답은 3번이었으나 채점하면서 생각이 바뀌어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의 식성에 따라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진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로써 이 문항은 평가 척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게 되었다.

37번 문항의 경우 외부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수업에 직접 참가했던 사람들이라면 조금만 기억을 되살리면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시험은 외부인들에게 창의적인 문항이라는 인식을 넣어주는 데에는 성공을 하였다. 하지만 수강생들로서는 간단한 기억력만 동원하면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로서 학습 결과에 대한 평정 도구로서의 기능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밖에 볼 수 없다.¹²⁾

더군다나 창의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 내는 사람이 창의적 사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창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 시험도 수업에 열심히 참가한 사람만이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 12) 사실 이 시험은 학생들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수업에 참가한 사람이라면 모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13번 문항 바로 뒤에 제시된 14번 문항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14. 다음 중 15조 발표 때 끓인 라면의 이름은?

- ① 콩라면 ② 신라면 ③ 삼양라면 ④ 바다가 육지라면

〈정답〉 2번

〈해설〉 정말 놀라웠다. 음식 속의 예술성이라는 제목의 발표였지요. 뭐든지 다 해도 좋다고 이야기했지만 수업시간에 라면을 끓일 줄 몰랐답니다. 코펠과 버너를 들고 무대로 나오는 학생들을 보며 설마 설마 했었는데 …… 백남준 선생님이나 요셉 보이스같은 사람들의 그것을 직접 본다면 아마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미국 갈 차비가 없는 우리들에게 참 좋은 경험을 준 발표였습니다. 다만 앞에서 라면이 끓는 동안 이것저것 이야기하던 학생이 좀 황설수설하긴 했지만 얼굴이 빨갛게 되어서 긴장한 듯 약간 떨면서 정신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 인간미를 느끼게 했어요.

인간의 고등 사고 능력인 창의성이라는 것이 과연 국가시험을 통해 측정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면 효심(孝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는 측정할 수 있지만 효심이 얼마나 있는지는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IV. 결론 및 제언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은 넘어 설 수 없다. 하루, 그것도 단 두 시간 정도에 치르는 임용시험으로서 국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모든 덕목을 측정할 수는 없다. 시험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과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어떠한 시험도 개인의 창의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근본적으로 창의성이란 것은 상대적이며 상황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 예를 들면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도, 교육적 적용 능력 등이 측정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¹³⁾. 이것이 시험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공정성을 높이는 관전이다. 이런 면에서 다음 <부록>에 제시되는 문항들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3)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 시험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평가 척도의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인제(2003) 참조).

* 본 논문은 2004. 6. 28. 투고되었으며, 2004. 7. 12. 심사가 시작되어 2004. 7. 23. 심사가 종료되었음.

〈부록〉 문학 작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이해도 평정 도구

대상 작품: 김동인, 『감자』

※ 맞는 것에 ○표 하시오. 틀린 것은 옳게 고쳐 쓰시오.

1. _____ 복녀는 열 다섯 살 나는 해에 동리 홀아비에게 팔십 원에 팔려서 시집이라는 것을 갔다.
2. _____ 복녀의 송장은 나홀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못 갔다.
3. _____ 놀고 있는 인부의 공전은 일하는 사람의 공전보다 팔 전이나 더 많
이 내어주는 것이다.
4. _____ 밤중에 복녀의 시체는 왕서방의 집에서 한방 의사의 집으로 옮겼다.
5. _____ 복녀는 말도 못 하고 멀진멀진 바구니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6. _____ 다른 중국인들은 새벽 세 시쯤 하여 돌아갔다.
7. _____ 시체 복녀의 주위에는 네 사람이 둘러앉았다.
8. _____ 어떤 날 밤, 복녀가 배추를 한 바구니 잘 도적질하여 가지고, 이젠 돌아오려고 일어설 때에, 뒤에서 시꺼먼 그림자가 서서 그를 꼭 붙
들었다.
9. _____ 한방의 손에도 십 원짜리 두 장이 갔다.
10. _____ 복녀의 시체는 칠성문 밖으로 가져갔다.

※ 간단한 답하기

1. 평양성 안 막간(행랑)살이 하던 집에서 쫓겨나와 복녀네가 간 곳은?

2. 평양부에서 무엇을 잡는 데 여인들을 인부로 썼나? _____
3. 왕서방은 마누라로 어떤 처녀를 얼마에 사오게 되었나? _____
4. 복녀의 시체를 두고 왕서방은 복녀의 남편에게 얼마를 주었나?

5. 한방 의사가 진단한 복녀의 사망 원인은? _____

※ 대화형 문제

* 다음의 인용된 부분이 누구의 말인지 쓰시오.

등장인물 : 복녀, 복녀의 남편, 감독, 동리 여편네들, 왕서방, 한방 의사

1. “남 줄음 오는데. 남자 치우시관.” _____
2. “애, 너, 음…… 데 뒤 좀 가보디 았잖나?” _____
3. “난 삼 원 받았다.” _____
4. “복녀, 강짜하갔구만.” _____
5. “우리, 오늘 밤 일이 있어 못 가.” _____

■ 참고문헌

- 박병선(1999), “중등교원 양성과정의 실과 허”, 『중등교원 양성제도의 발전 방향』,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98 전국 최우수 사범대학 선정 기념 학술 심포지움 자료집.
- 교육인적자원부(2003),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 계획(안)』
- 김대행 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출판부.
- 김중신(1996), 『문학교육의 이해』, 태학사.
- 김중신(2003), 『한국문학교육론의 방법과 실천』
- 박인기(1996), 『문학 교육 과정의 구조와 이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인기(1992), “국어과 교재론 기술의 이론화 방향”, 『국어과 교육학의 이론과 방법 연구』, 교학사.
- 송현호(2000), 『한국현대소설론』, 민지사.
- 신헌재(1995), 『국어 교과와 수업 모형』, 일지사.
- 유인순(2003), 『김유정을 찾아가는 길』, 숲과 학.
- 이재승(1997), 『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 : 과정 중심의 국어교육』, 박이정.
- 정구향(1999),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방안과 교수 학습 자료 개발 연구』, 연구개발 98-6-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3),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개선안』, 연구자료 ORM 2003-16.

<http://110.naver.com/100.php?id=22018>

<http://100.naver.com/100.php?id=138886>

〈초록〉

중등학교 임용시험(국어과)의 비판적 검토

김중신

이 글은 중등학교 임용시험(국어과)의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루, 그것도 단 두 시간 정도에 치르는 임용시험으로서 국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모든 덕목을 측정할 수는 없다. 시험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과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어떠한 시험도 개인의 창의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근본적으로 창의성이란 것은 상대적이며 상황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등학교 임용시험은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는 교사를 감별하고 선정해 내는데 적절한 평가 도구였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 출제문제에 대한 공정성 시비 제기와 문제출제 영역 사전공고 및 채점 기준표 공개요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의 임용시험이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국어 교사를 뽑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창의적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란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받기 힘들다. 더군다나

그렇다면 국어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 예를 들면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도, 교육적 적용 능력 등이 측정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시험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공정성을 높이는 관건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문학 작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이해도를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도 주목을 해야 할 때이다.

【핵심어】 중등교사 임용자격시험, 국어 교사, 신뢰도, 타당도, 도구의 개발

〈Abstract〉

A Critical Research Qualification Test for Appointment of
Middle School Teacher(QTAT)

Kim, Jung-sin

In this paper, I proposed to examine some problems and alternative about Qualification Test for Appointment of Middle School Teacher(QTAT). Because QTAT takes in brevity, it can not test all qualities that teacher of Korean teacher to be equipped. There are the thing which can measure and thing which can not measure by test. There is nothing which can measure some test chart of individual's creativity. Because individual's creativity is relative that is initiative and changes according to circumstance. This examination is evaluated that does not have suitable function of selecting teacher of Korean who have excellent quality.

Recently, it is advanced to various different view about QTAT. The authorities speaks that it is to serve that this examination enlists creative teacher of Korean. However, the test for measuring creativity is hard that is verified the validity and trustability. QTAT must become test that verify minimum quality that must possess as teacher of Korean. For example, this test must measure knowledge or understanding about electrician, educational application ability etc.. This is the method that heighten believability and validity and fairness about examination. It will have to observe development of a tool that measure basic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bout literary works now for this reason.

【key words】 Qualification Test for Appointment of Middle School Teacher(QTAT), Teacher of Korean, reliability, validity, development of a tool